

아름다운교회 소식과 나눔

1. 주일인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뻐하고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성탄절 예배 헌금

오늘 드러지는 성탄 헌금의 50%는 우리교회가 협력하는 네팔 난민교회 차량구입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이번주 금요기도회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

- 가정에서 (예배지 배포)
- 필그림 하우스, 9PM

4. 렉센터 장소제한으로 인한 연말/연시 예배 안내

- 12월 25일: 장년부 (Arbutus room), 아름키즈 (Fir room) @ 1PM
- 1월 1일: 장년부 (Arbutus room), 교육부서 (지정 예배실) @ 1PM

5. 5 Urban Mission (학원선교사역)

JDM(예수제자운동)에서 12/27-29 수련회 기간 식사후원으로 도움을 주실 손길을 기다립니다. (필요비용 300불/도시사역부 문의)

6. 새벽기도회 및 신년 특별새벽 기도회

- 새벽기도회: 12/27 (화)부터, 필그림 하우스, 6 AM
- 신년특별새벽 기도회: 2023. 1. 2(월) - 6(금), 필그림 하우스, 6 AM

7. 크리스마스 선물 배포

8. 2023년 달력 배포

9. 교역자 동정

이인한 목사, 이진희 사모 부임(2대 담임목사)
778-839-7414 개별 폰에서 이름 변경 부탁드립니다 (정요셉 → 이인한)

10. 섬김과 나눔

오늘 간식은 흥동희 집사가정, 권태운/나정미 권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온라인 헌금 안내

INTERAC e-Transfer 로 헌금 (offeringnadc@gmail.com)
security question: offering / answer: NADC



2022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

부르신 곳에서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예배하고,
보내신 곳에서 세상 한 모퉁이 바꾸며 살아갑니다.
(눅 17:21)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오솔길
신앙과 일상이 아름다운 청지기삶
마당과 장장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하나님의 선교
모두가 참여하는 따뜻한 소통

예배 & 모임 안내

| 예배/모임 | 시간 | 장소 |
|-----------|-------------|---------------------------|
| 주일 1부 예배 | 주일 9 AM | Delbrook Centre (Arbutus) |
| 주일 2부 예배 | 주일 11 AM | Delbrook Centre (Arbutus) |
| 새벽 예배 | 화 - 금 6 AM | Pilgrim House |
| 유치/아동부예배 | 주일 11 AM | Delbrook Centre (Ash 1) |
| 청소년부예배 | 주일 11 AM | Delbrook Centre (Ash 2) |
| 청년부모임 | 주일 12:30 PM | Pilgrim House |
| 금요기도회 | 금요 8 PM | Pilgrim House |
| 중보기도모임 | 화요 11 AM | Pilgrim House |
| 아름 모임 | 자유롭게 | 형편대로 |
| 양육 과정 | 상반기, 하반기 | Pilgrim House |
| 아름다운 한글학교 | 토요 9:30 AM | Pilgrim House |

섬기는 사람들

| | | |
|---------|-------------|--------------|
| 이인한 목사 | (담임목사) | 778-839-7414 |
| 박재희 목사 | (행정/청년) | 236-666-6015 |
| 안성대 목사 | (예배/찬양) | 604-908-9854 |
| 변희지 전도사 | (아름키즈/한글학교) | 778-957-1470 |



예배장소 안내

주일예배: Delbrook Community Centre (851 W. Queens Rd. North Vancouver)

주중모임: Pilgrim House / 사무실 (844 W. 15th North Vancouver)

새벽녘 (Dawn) 피어나는
아름다운 백합화 (Arum Lily) 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Northshore Arum Dawn Church

주 . 일 . 예 . 배

Sunday Worship Service

연합예배 1 PM

※ 는 일어서 주십시오

| | |
|----------|--|
| 예배의 부름 | 성탄절 |
| ※ 여는 찬송가 | 찬송가 115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 ※ 성서교독 | 교독문 119 성탄절(1)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 공동의 기도 | 함께 드리는 기도 (주보안쪽) |
| 경배와 찬양 | 왕이 나셨다 참 반가운 성도여 아름다우신 |
| 대표기도 | 이 혁 권사 |
| 부임인사 | 이인한 목사 |
| 설교 | '사랑이 이긴다' 요한일서 4:11-21 (신약 392) 이인한 목사 |
| 드림의 시간 | 헌금 위원 |
| 소식과 알림 | 인도자 |
| ※ 파송의 찬양 | 찬송가 126 장 (천사 찬송하기를) |
| ※ 보냄의 말씀 | 교독으로 (주보안쪽) |
| ※ 축도 | 이인한 목사 |

헌금은 들어 오시며 준비된 헌금함에 정성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CONTACT

Phone: 778-839-7414

홈페이지: www.arumdawnchurch.com

e-mail: info@arumdawnchurch.com

공동의 기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연약하고 죄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기적을 몸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깊은 곳에 잠기게 하사
 기쁨과 평안과 회개와 소망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와 죄짐에 눌린 사람들을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닮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오실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 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냄의 말씀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아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새가족 등록 안내

- ✓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 **첫만남:** 예배 후 새가족팀을 통해 교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도와 기다림:**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등록 여부를 고민해 주세요
- ✓ **등록과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N 예배 섬김

| 주 일 | 12/25 | 1/1 | 1/8 |
|----------|------------------------------------|--------|---------|
| 대표기도(1부) | 이 혁 권사 | 정재찬 권사 | 변희지 전도사 |
| 대표기도(2부) | | | 어희승 집사 |
| 헌금위원 | 권사회 | 권사회 | 권사회 |
| 안내위원 | TBA | | |
| 찬 양 팀 | 안성대 유초엽 이혁 장희원 장유현 천상기 권태운 김경미 흥동희 | | |

A 지난주 통계 (12/18)

| 예배인원 | | 헌금 통계 | |
|---------|-----|-------|------------|
| 주일 1부예배 | 17명 | 주일헌금 | \$790.00 |
| 주일 2부예배 | 28명 | 십 일 조 | \$280.00 |
| 아름키즈예배 | 10명 | 감사헌금 | \$290.00 |
| 아름틴예배 | 16명 | 선교헌금 | - |
| 아름청모임 | 6명 | 기타헌금 | \$100.00 |
| 합 계 | 77명 | 합 계 | \$1,460.00 |

D 교회 학교

| 아름키즈 (유치, 아동) | 아름틴 (청소년) | 아름청 (청년) |
|-----------------------------------|--------------------|-----------------------------|
| "No Vacancy" (눅 2:1-8) 변희지 전도사 | 12월 25일 장년부와 함께 | 성경묵상 처음과정 (1과) 박재희 목사 |

C 새벽기도회

| 12/26 (월) | 12/27 (화) | 12/28 (수) | 12/29 (목) | 12/30 (금) |
|-----------|------------|-----------|-----------|-----------|
| 요일 5:1-12 | 요일 5:13-21 | 요일 1:1-6 | 요일 1:7-13 | 요일 1:1-18 |

송구영신 예배 안내

12월 31일 (토) 9pm / Pilgrim House
 인도: 이인한 목사

5 Urban Mission

세상만모퉁이

- 해외선교사역/ 과테말라 Quetzaltenango (한광득 선교사)
- 홀리스사역/ Community of Hope (김용운 선교사)
- 원주민 사역/ Nanaimo Native Victory Church (조혁준 선교사)
- 난민섬김사역/ FCC 네팔난민교회 (정원준 선교사)
- 학원선교사역/ UBC, SFU 예수제자운동 (류대선 선교사)

묵상가이드 매일성경 QT (12월 넷째 주) / 요일 5:1 ~ 요삼 1:15

[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요일 5:1~12)
 사도요 장로인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된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무거워하지 않고'(3) 지킵니다. 성자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6) 성령의
 증언을 받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하는 자는 그분의 참생명을 소유합니다.

[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13~21)
 요한을 따르는 이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의 이단으로 인해
 흔들리고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진리 안에 확신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형제들을 위해 중보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보한다면 듣고 응답하실 것을 담대히 믿으라 역설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18)도록 지키신다고
 격려합니다.

[수] 사랑과 계명의 역학관계 (요일 1:1~6)
 요한 2서의 시작에서, 스스로를 '장로'라고 밝힌 요한 사도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지칭되는 예배 공동체에 문안합니다. 사도는 진리대로 행하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면서,
 처음받은 바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계명을 따르는 것은 처음 들은 가르침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목] 기쁨을 충만케하는 만남 (요일 1:7~13)
 사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7) 미혹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며, 그 교훈을 가지지도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11)라고 하면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12)이라고 하며 향후의 방문계획을 밝히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요삼 1:1~8)
 요한 3서는 장로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밝히며 시작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가이오에 대한 증언이 사도를
 참으로 기쁘게 한다고 칭찬합니다. 특히 "나그네 된 형제"(5)들에게 신실하게 행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8)한다고 강조합니다.

[토]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요삼 1:9~15)
 장로는 편지에서, 사도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오뎀되기를
 좋아하는"(9) 드오드레베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장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속히 대면하여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는 인사로 편지를 맺습니다.